

---

#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

---



금융감독원

## I. '25년 대외 경제 여건 및 국내 경제 전망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향

### 가계 및 기업 부문

- ① 가계부채 관리 강화
- ② 부실PF 사업장 정리
- ③ 기업부문 신용위험 증가
- ④ 취약 개인사업자 확대 우려
- ⑤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가능성

###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

- ① 중소기업권 건전성 약화 우려
- ② 보험사 건전성 약화 우려
- ③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 ④ 고환율 지속에 따른 리스크 관리

## III. 지속 추진 주요 업무 과제

- ① 자본시장 선진화
- ② 보험개혁 종합방안 추진
- ③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 제고
- ④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 ⑤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

# I. '25년 대외 경제 여건 및 국내 경제 전망

## (1) '25년 대외 경제 여건

### 미국 정책 불확실성 증대

#### □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갈등 가능성

- 미국은 4.2.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일부 국가는 **보복관세**를 예고  
→ 본격적인 무역분쟁으로 번질 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 美 관세정책은 금년 **국내 GDP성장률**에  $\Delta 0.3\%p \sim \Delta 0.6\%p$  수준의 악영향 전망(GS, JPM, OECD 전망치)

#### □ 美 경기둔화 우려

-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美경제 완만한 둔화** 국면 진입 전망 확대\*  
\* FOMC, 주요 IB 역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및 **침체 확률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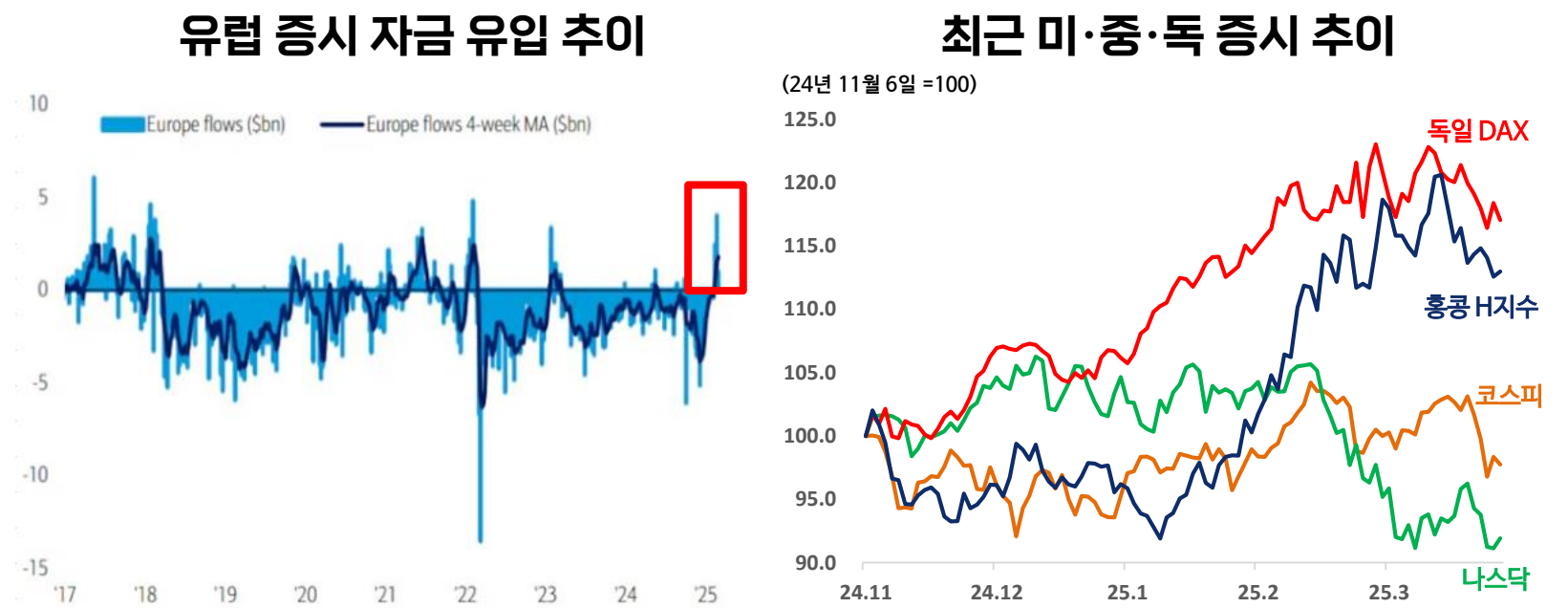
구분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년도 경기침체 확률
FOMC	2.1% ⇒ <b>1.7%</b>	-
MS	1.9% ⇒ <b>1.5%</b>	-
GS	2.4% ⇒ <b>1.7%</b>	15% ⇒ <b>35%</b>
JPM	1.9% ⇒ <b>1.6%</b>	30% ⇒ <b>40%</b>

\* '25.3.31. 기준

### 글로벌 자금의 미국 外 이동

#### □ 유럽·중국 등으로의 자금 흐름

- (미국 예외주의 약화)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중국** 등 미국 外 지역으로 조금씩 **이동**



- (유럽) 美증시의 유출 자금이 **유럽 증시**를 **대체재**로 인식\*  
\* 독일이 국방비 등 정부지출 확대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방산주를 중심으로 유럽증시 상승 견인
- (중국) DeepSeek 등 **AI 혁신** 계기로 **기술주** 위주 **재평가**

# I. '25년 대외 경제 여건 및 국내 경제 전망

## (2) '25년 국내 경제 전망

### 경기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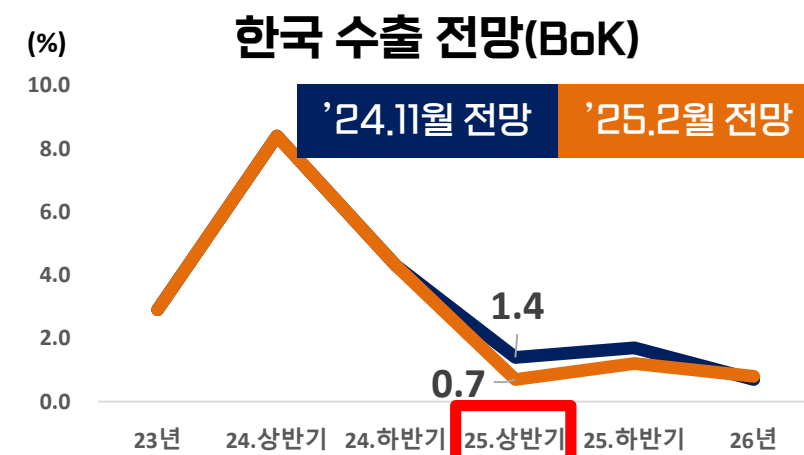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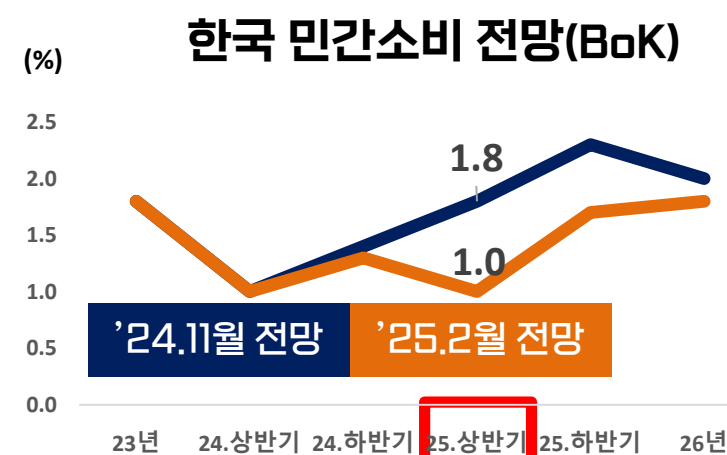
#### □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1%대 경제성장 우려

-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건설 부문 부진 등 내수 회복세 제약 등으로 1%대 경제성장 전망\*

\* 해외 주요 IB 및 국내연구기관 역시 '25년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해외 IB등 '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현황

구분	GS	MS	JPM	Citi	한은	KDI
성장률 전망치	1.8% ⇒1.5%	1.5% ⇒1.2%	1.3% ⇒0.9%	1.5% ⇒1.0%	1.9% ⇒1.5%	2.0% ⇒1.6%



### 정치 및 금리경로 불확실성

#### □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확대

- 정치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
-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전개에 향후 경제성장 경로가 크게 영향

#### □ 금리인하 전망에도 인하 시기 불확실성 상존

- '25년중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나, 미국 통화정책 및 국내 경기·환율 등에 따른 경로 불확실성 상존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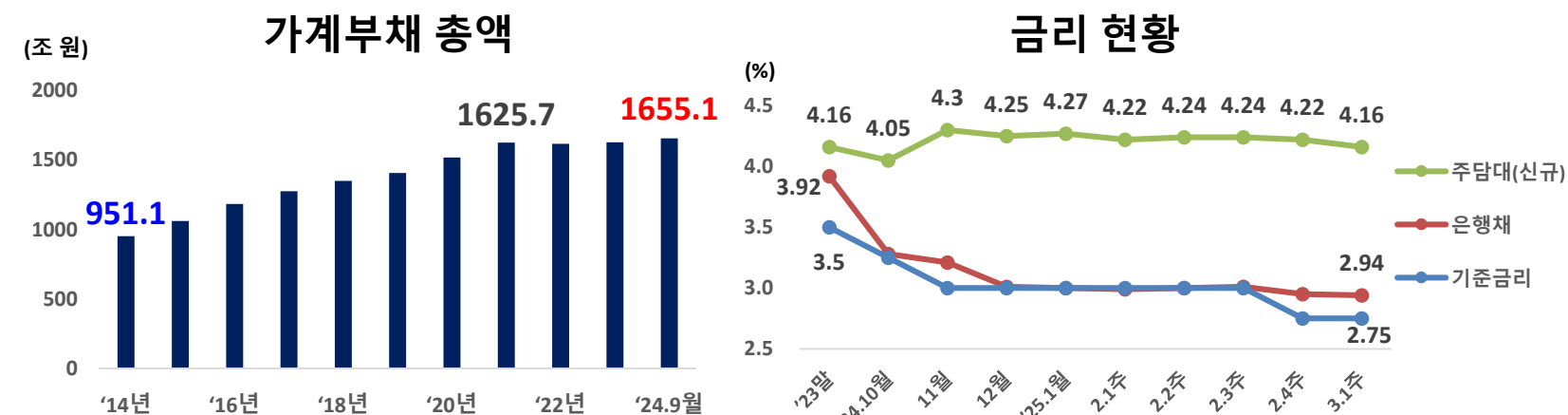
### (1) **가계부채 관리강화**

#### 현황

##### □ 가계부채 추이

- ('22년~)안정화추세 → ('24.4월~) **증가세**(금리인하 기대, 주택가격 상승) → ('24.9월 이후) **증가폭 둔화**  
⇒ '24년중 총 +41.6조원(+2.6%) 증가로 **경상성장률(5.9%<sup>a</sup>)** 內 **관리**
- ('25.1분기) +3.7조원<sup>p</sup> 증가 ⇒ 현재까지 **안정적** 관리 중

##### □ (금리) '24.11월 이후 은행권 주담대(신규) 금리 **하락** 추세('24.11월 4.30% ⇒ '25.3월 1주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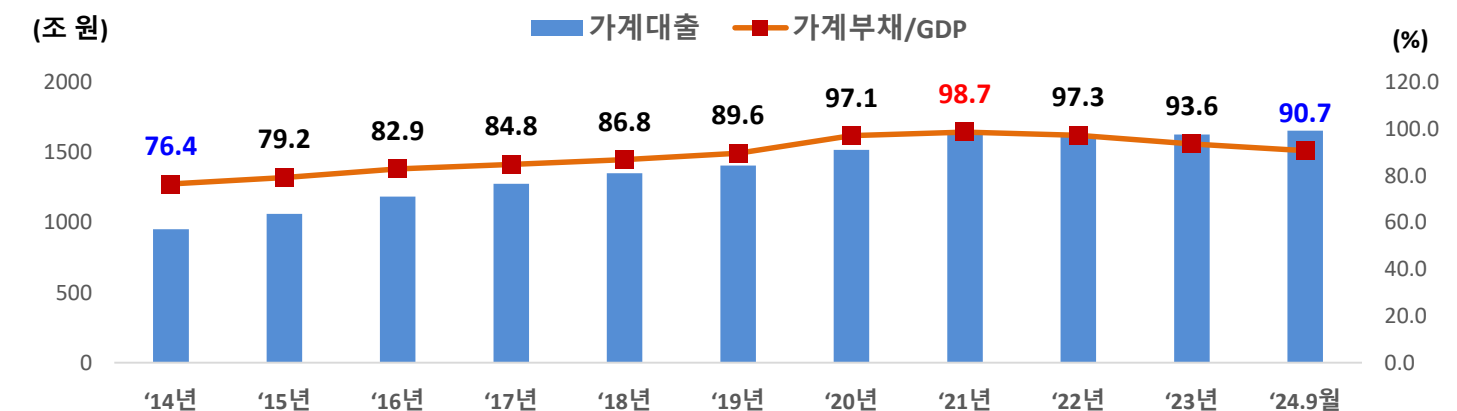
##### □ (주택시장) '24.6월 상승전환 후 안정화 ⇒ '25년 들어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

\* 매매가격지수 변동(서울/지방): ('24) 4.67/△1.67 ('25.1) 0.01/△0.21 ('2) 0.24/△0.15

#### 리스크 요인

##### □ 리스크 요인과 파급경로

-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GDP** 비중이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IMF)



- (파급경로) **부동산대출 증가** → **주택구매수요 증가**  
↑ **부동산 대출수요 쏠림** ← **부동산가격 상승**  
⇒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가계 상환부담 ↑, 부실위험 ↑)

##### □ 예상영향

- (소비자 측면) 상환부담 증가 ⇒ 상환능력 초과 사례 ↑
- (금융회사 측면) 자산 포트폴리오 쏠림, 자산건전성 악화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 **(1) 가계부채 관리강화**

#### 대응경과

##### □ 대응경과

- ① **가계부채/GDP 비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부채 증가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 ②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경영계획**(금융사 자율수립) 준수현황 **모니터링**
- ③ **지방 및 서민·취약계층**에 원활한 자금 공급 유도\*  
\* **지방은행**에 5대 은행 대비 **완화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제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은 가계대출 실적 관리시 **제외** 등 **인센티브** 부여
- ④ **상환능력 중심 여신 심사관행 확립** ⇒ **2단계 ST DSR** 시행(24.9월)

#### 향후계획

##### □ 「가계부채 관리방안」(2.27.) **충실 이행**

- ① **대출금리·주택시장 동향,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현황**  
**모니터링** ⇒ 특정시기 **쏟림현상 방지**
- ② **상환능력 중심 여신 심사관행 확립** ⇒ **3단계 ST DSR** 시행(25.7월)
- ③ **DSR 예외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관리목적 DSR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정교한 여신관리 유도  
\*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④ **정책대출\***도 **공급속도·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  
\*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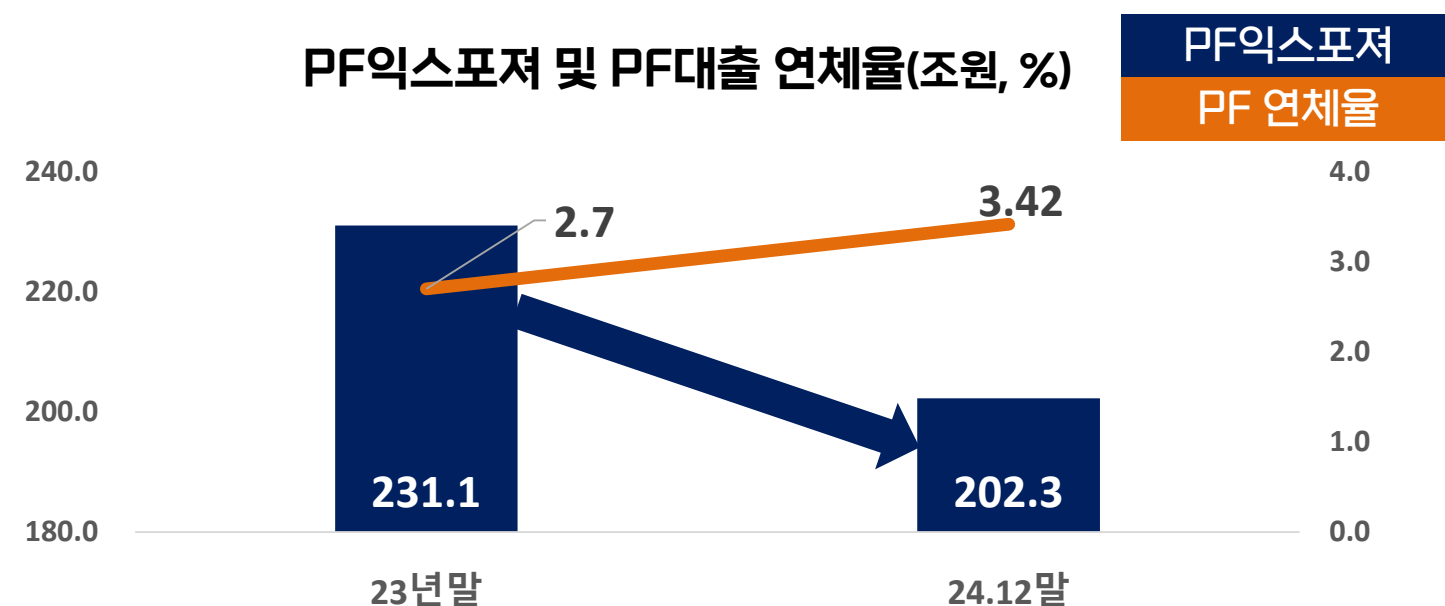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 (2) **부실 PF 사업장 정리**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현황)** '24년말 기준 **부동산PF 익스포저\*** **총 202.3조원**,  
**연체율 3.42%**('23년말 대비 0.72%p 증가)

\* PF대출+토담대+채무보증



- **(리스크 요인)** ①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 둔화**

② **추가 신규 부실 증가\***

\* 사업성 양호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정리 경향,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

⇒ **연체율 반등, 금융회사 부실 누적, 금융중개기능 약화**

#### 대응경과(제도개선)

- **新사업성 평가기준 마련('24.4~6월)**

	현 황	개 선
평가 대상 확대	본PF, 브릿지론 限	+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신규 포함
평가 등급 세분화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평가기준 구체화	체크리스트 중심의 본PF평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본PF +브릿지론 평가
사후관리 기준 마련	사후관리 기준 부재	사업성 부족 사업장 관리 + 평가결과 점검 강화

- **新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PF 사업장 정밀평가 실시 및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 제출·점검**  
( '24.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3차례 실시)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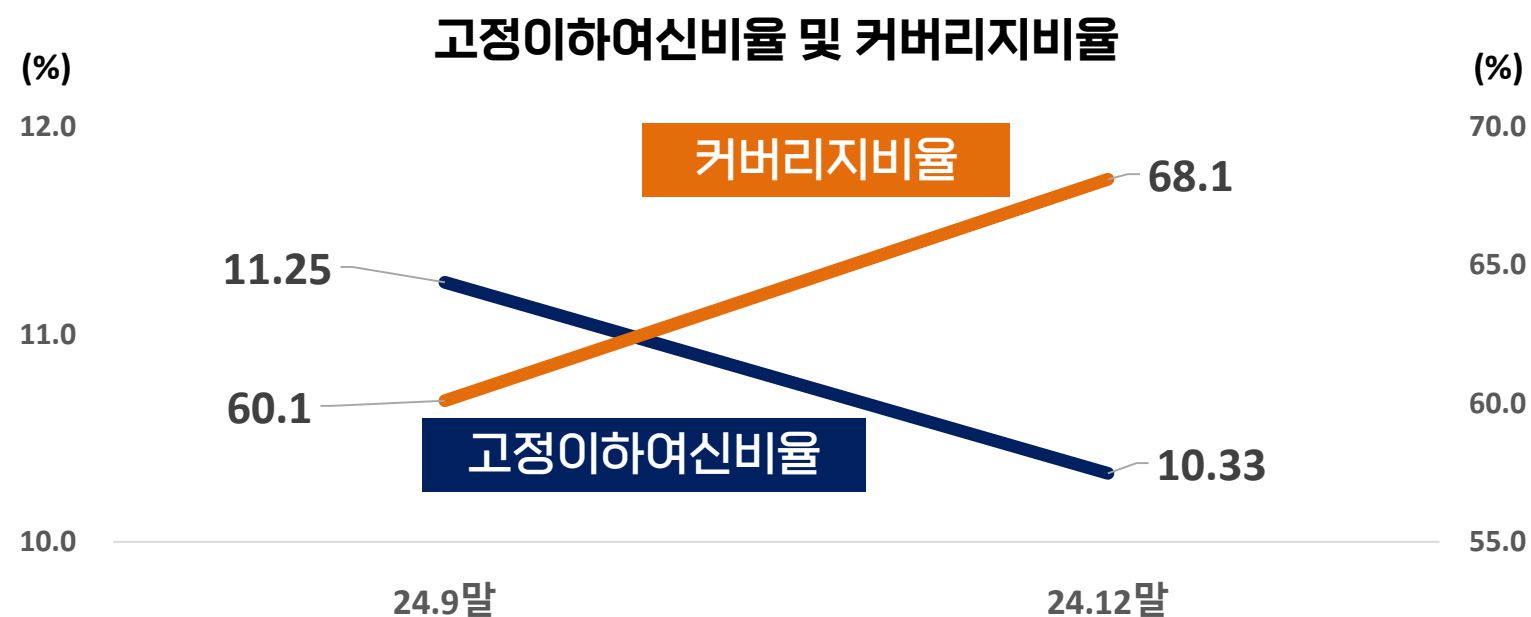
### (2) **부실 PF 사업장 정리**

#### 대응경과(정리·재구조화 실적)

□ **부실여신 20.9조원 중 6.5조원(30.9%)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완료**(’24.12월말 기준)

⇒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 및 손실흡수 능력 개선\***

\* 고정이하여신비율 **감소**: 11.25%(’24.9월말) ⇒ **10.33%**(’24.12월말)  
커버리지 비율 **상승**: 60.1%(’24.9월말) ⇒ **68.1%**(’24.12월말)



□ **’25년에도 총 1.8조원\*** 정리 **가시화**

\* 경공매 플랫폼(0.5조원) 및 중대형사업장별 관리(1.3조원) 등

#### 향후 계획

□ 금융회사의 **자체 부실정리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실 PF사업장 정리 지속 유도**

① 적극적 정보 공개 유도를 통한 **PF사업장 자율매각 활성화\***

\* 정보공개 플랫폼 정보 확대, 매각설명회 개최 등

② **사업장 매입 후 시행·시공사**를 위한 **지원 정책** 지속 추진

지원책	주요 내용
신디케이트론	업권별 PF연착륙 지원 펀드 조성 (은행 및 보험업권은 ’24.6월부터 1조원 규모로 운영)
HF보증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건축공사비 지원

③ **PF 정상화 펀드** 설정(펀드에 외부투자자가 일정 지분이상 참여 →  
자율매각이 어려운 PF부실 정리)

④ 부실사업장별 **정리 미흡사유 파악** 후 **개선유도** 및 **미흡** 금융회사  
**현장검사** 등을 통한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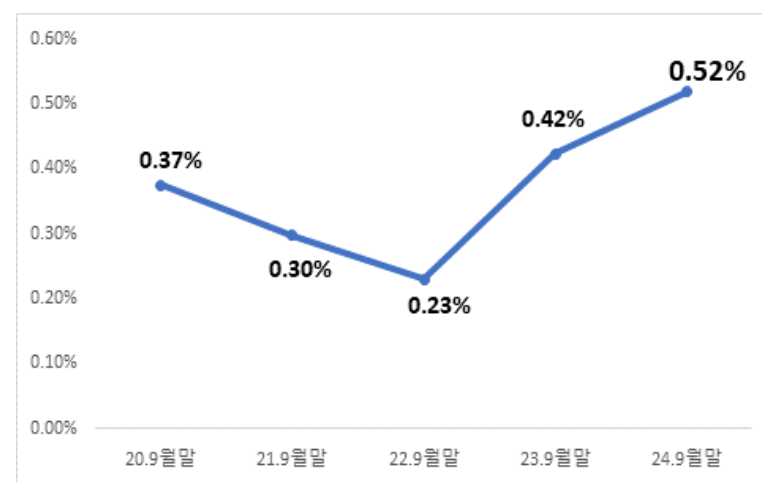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 **(3) 기업부문 신용위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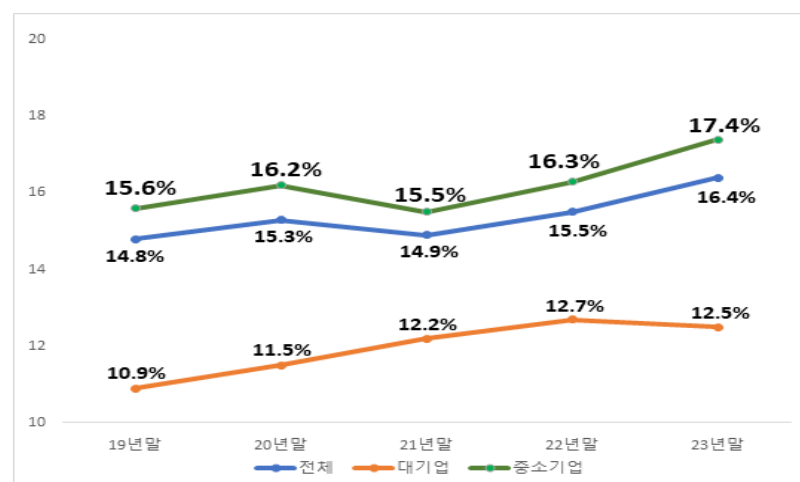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현황)** 주요국·국내 경기회복 지연 및 美 정책 불확실성  
⇒ 국내 기업 **영업환경 악화**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국내 한계기업 비중



- **(리스크 요인)** 내수경기 침체 지속, 美 관세 등 통상갈등, 中 경기침체, 금리인하 불확실성 등  
⇒ 기업부문 **신용위험** 및 **부실 확대** 시 **시스템리스크** 전이·작용 우려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대응경과)** 취약산업(건설 등) **리스크 요인 점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별\*** 및 **구조개선 유도**

\* '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선정된 부실징후기업은 230개로 '23년 대비 △1개 감소(부동산업 30개, 자동차 21개 등 順)

- **(향후계획)** **신용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 신용위험 평가시 엄정평가**를 유도

⇒ 국내 **주요산업\*** **상세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 석유화학, 2차전지, 건설, 철강 등

- ① **(산업지원)** 산업별 **특성**, 美 **통상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 영향**을 **상세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지원방향 모색
- ② **(모니터링)**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등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매주 세부동향**을 **파악**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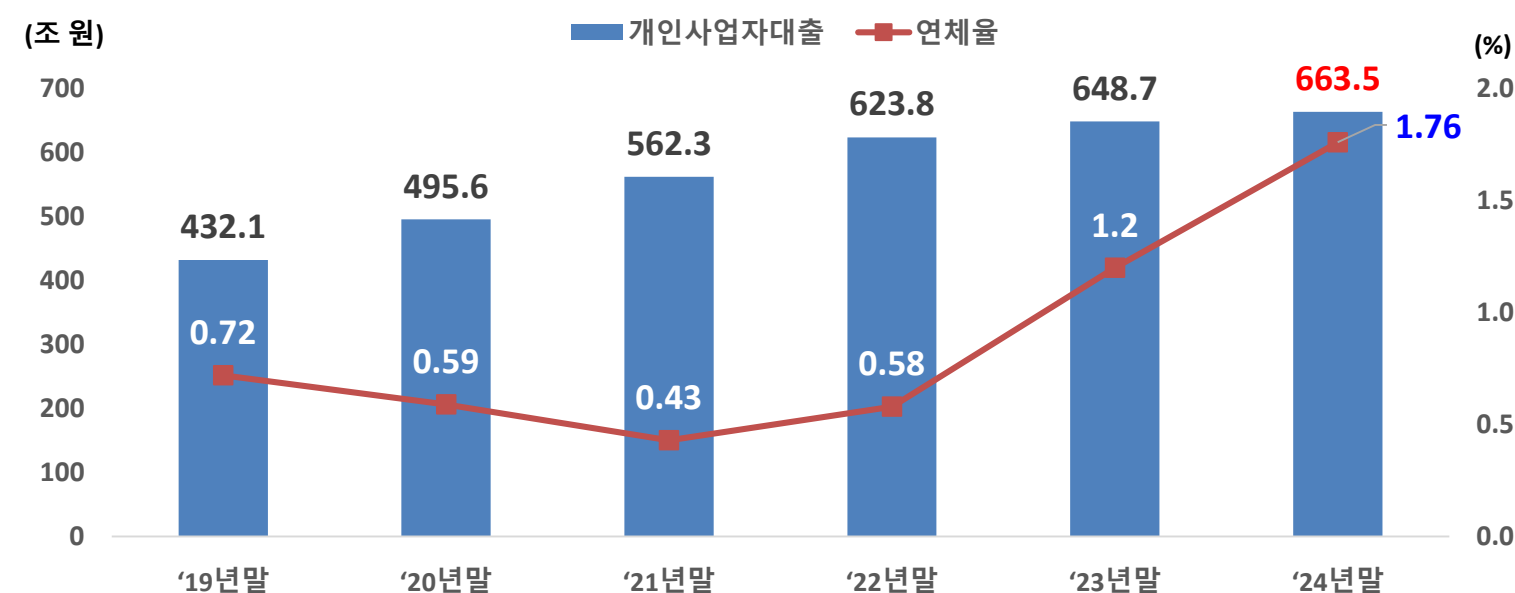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 **(4) 취약 개인사업자 확대 우려**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현황)** '24년말 **소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663.5조원)은 '23년말 대비 **14.8조원(+2.3%) 증가**

○ **연체율**은 **이자부담 증가, 내수부진** 등으로 '21년말 이후 **상승세 지속**



□ **(리스크 요인)** **내수경기 회복 지연**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 개인사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 다만, 최근 ①**연체율 상승세 둔화** 및 ②**다중채무자 대출액·차주수 소폭 감소**('24년 중 대출 △0.3조원 감소, 차주 △1.3만명 감소)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대응경과)** 국민이 체감하는 **상생금융 확대 유도**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23년~) 및 **이자환급**(’24년)
- ②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팅 이수자 금리할인**(’24.5월) 및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공시**(’24.12월)
- ③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동향 모니터링** 및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

□ **(향후계획)**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월)

- ① 연체우려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119<sup>Plus</sup>)
- ②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최장 30년 이내 분할 상환)
- ③ 소상공인 대상 상생 보증·대출(햇살론119, 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
- ④ 은행권 컨설팅 제공(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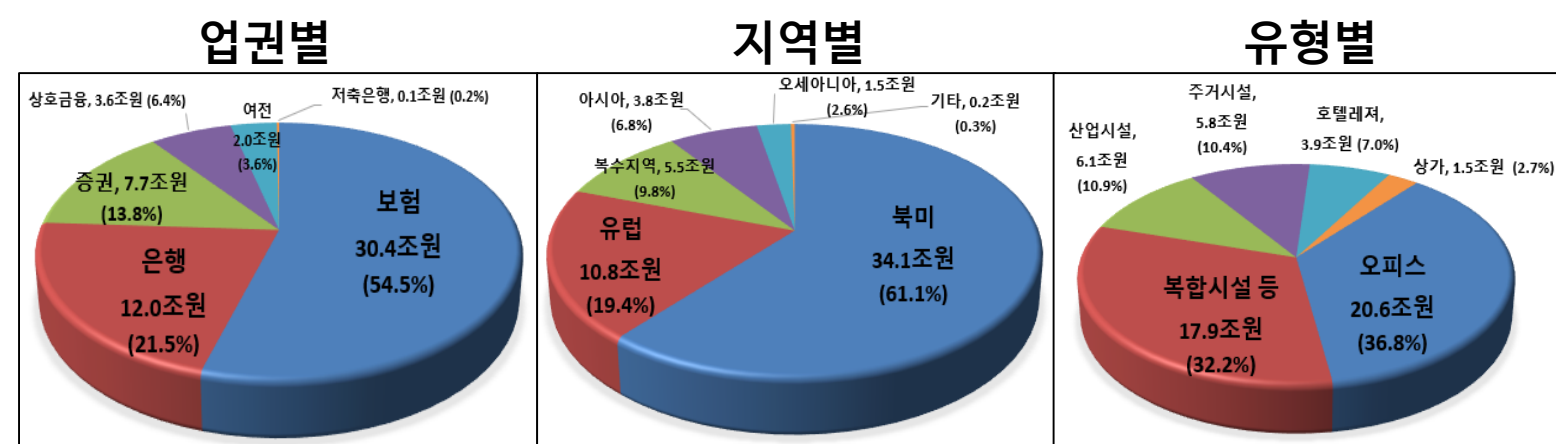
\* 금년 4월중 시행예정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가계 및 기업 부문**

### (5)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가능성**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현황)** '24.9말 **소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55.8조원\***(총자산 대비 0.8%) \* 전분기말 대비 **△0.5조원 감소**



○ **EOD 발생 사업장 익스포저 2.64조원\***(7.7%)

\* 개별 사업장 파락이 가능한 단일 프로젝트 사업장 34.3조원 중

\*\* EOD발생 규모(조원): '24.3월말 **2.50** → '24.6월말 **2.61** → '24.9월말 **2.64**

□ **(리스크 요인)** 국내 금융회사가 주로 투자한 **오피스 시장**  
**불황 지속\*** → **공실률 상승** → **현금흐름(임대료) 감소** →  
**부동산 가치하락** → **EOD 발생** → **손실확대**

\* (오피스 가격지수) 美: 113.4('22고점) → **73.3('23말)** → 72.6('24말)

EU: 129.4('22고점) → **82.7('23말)** → 80.0('24말)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대응경과)** 금융회사 **적정손실인식, 손실흡수능력** 제고 지도,  
**대체투자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사항 마련**

① **금투업권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 기준 개정 완료('25.3월)**  
 ⇒ **他 업권 순차 개정예정**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무화 등) 완료('25.3월)**

□ **(향후계획)** 손실확대 가능성 있는 **오피스 투자**는 **세부분석**  
 ⇒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감독\*** 실시

\* (예) EOD 발생·유예사업장 등 → 손실인식 적정성 점검, 리파이낸싱 진행상황 파악  
 감평 미 실시 사업장 등 → 사업장별 감정평가 최신화 등  
 특이동향 미 보고 사업장 등 → 업권간 정보교류 강화 통해 손실인식 수준 조정 등

○ **오피스 외 타유형**(주거용, 상가, 호텔, 산업시설, 복합시설 등)도  
**손실인식 상이 사업장 조정 등 진행**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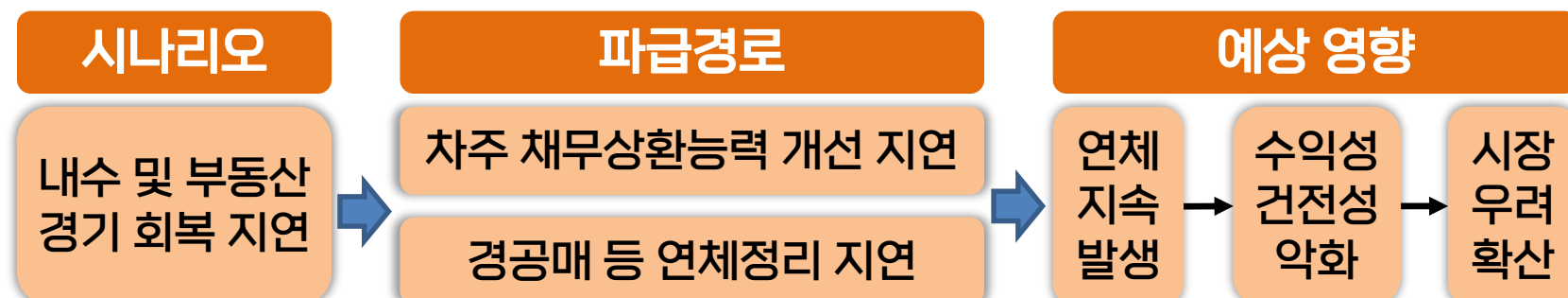
### (1) 중소금융업권 건전성 악화 우려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현황) '24년 중소금융업권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상반기 상승, 하반기 상승폭 둔화

구 분	22년말	23년말	24년말				상반기 증감	하반기 증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저축은행	3.41	6.55	8.81	8.51	8.89	8.52	+1.96	+0.01
상호금융	1.52	2.97	4.12	4.38	4.89	4.54	+1.41	+0.16
카드사	1.21	1.63	1.76	1.69	1.59	1.65	+0.06	△0.04
캐피탈사	1.25	1.88	2.21	2.04	2.17	2.10	+0.16	+0.06
새마을금고	3.59	5.07	7.75	7.25	7.68	6.81	+2.18	△0.04

#### □ 리스크 요인과 파급경로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대응경과

- ① 부실 PF 사업장 경·공매 및 재구조화 계획 징구 후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 독려
- ② 취약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 건전성 신속 개선  
\* '24.12월 안국·라운, '25.3월 상상인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 ③ 다중채무자 총당금 요적립률 상향\*(저축은행) 및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총당금 요적립률 상향(상호금융)  
\* '24.7월부터 5개이상 금융회사 대출이용 차주에 대한 요적립률 단계적 상향 (5~6개 이용시 30%, 7개이상 이용시 50%)

##### □ 향후계획

- ① 현장 검사, 연체율 관리 계획 점검, 중앙회 중심 연체채권 공동매각 ⇒ 건전성 관리 강화
- ② 저축은행·상호금융 제도개선 T/F를 통해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 (예)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

### (2) 보험사 건전성 약화 우려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 (현황) '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新회계제도(IFRS17) 및 新건전성제도(K-ICS) 도입

- K-ICS 제도 下 리스크 산출기준 강화(장수·해지·대재해 등 5개 위험 신설 등)

⇒ ① 요구자본 상향\*, ② 보험사의 정교한 자본관리 요구

\*RBC 요구자본('22년말): 67.9조원 → K-ICS 요구자본('24.9월): 118.9조원

##### □ (리스크요인) 보험업권 전체 자산·부채듀레이션이 음(-)의 값(부채 > 자산)

- 시장금리 하락시 시가부채 증가로 순자산 감소, 지급여력비율 하락
- 할인율, 해지율, 손해율 등 제도개선으로 보험부채 증가(자본감소)  
⇒ K-ICS 비율 하락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체계 강화

- 스트레스테스트(ST) 등을 통해 금리하락 및 제도개선에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 자산·부채종합관리 체계 강화

##### □ Two-Track 제도개선

- “기본자본 강화”, “감독기준 합리화”의 Two-Track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質) 제고를 지속 유도
- ① 기본자본 K-ICS비율을 규제비율로 도입  
⇒ ST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
- ② 舊제도(RBC)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 등을 K-ICS 기반으로 합리화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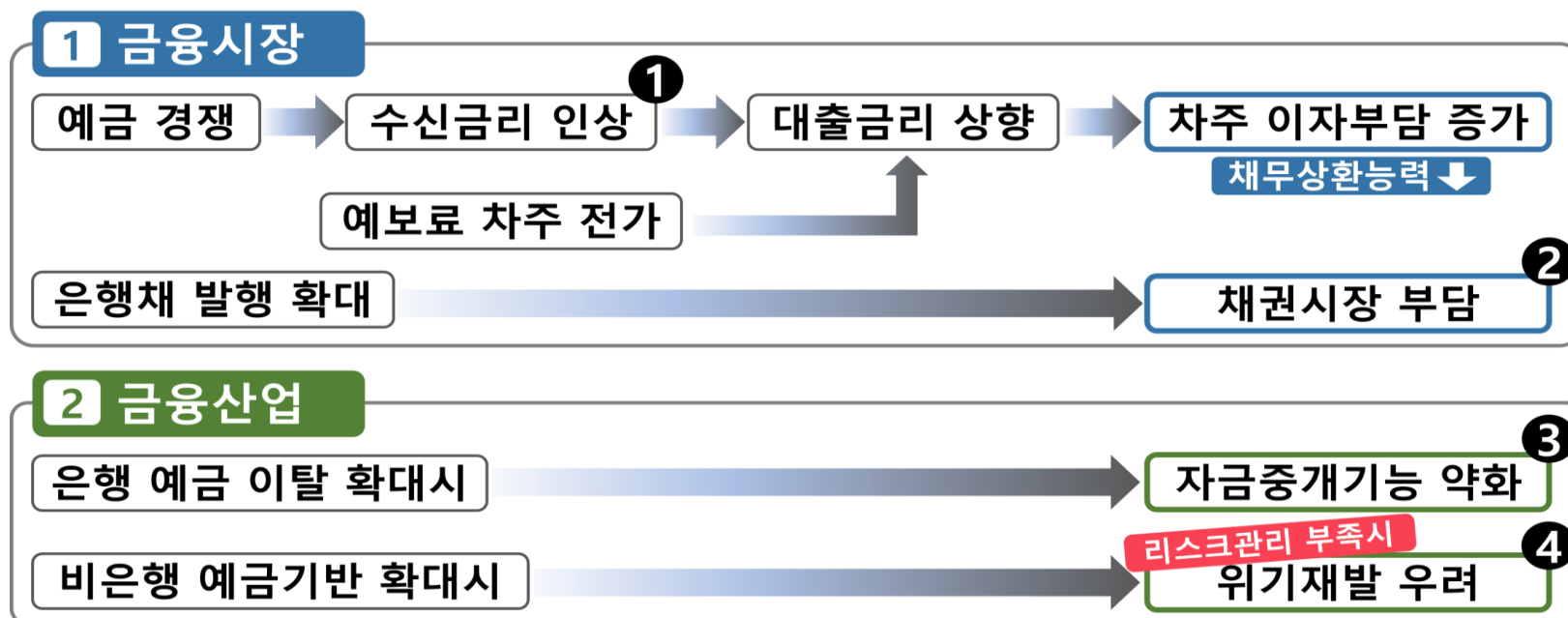
### (3) 예보한도 상황에 따른 머니무브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 (현황)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 시행시기는 공포(25.1.21) 후 1년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 리스크 요인



- ① 여수신 금리인상 ⇒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 ② 은행채(우량채) 발행 확대 ⇒ 채권시장 부담 소지
- ③ 예금 거액 이탈시 ⇒ 은행 자금중개 기능 약화 우려
- ④ 저축은행 등 자금기반 확대시 ⇒ 위기 재발 우려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적정 시행시기 검토 중

- ①자금시장 변동성이 작고, ②자금수요가 안정화되며, ③제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낮은 시기

##### □ 업권간·업권내 자금이동 대응방안 마련

- 과도한 수신경쟁을 통한 자산확대 방지

##### □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방안 마련

- 자금기반 확대 ⇒ 고위험 대출·투자 ⇒ 위기 재발 우려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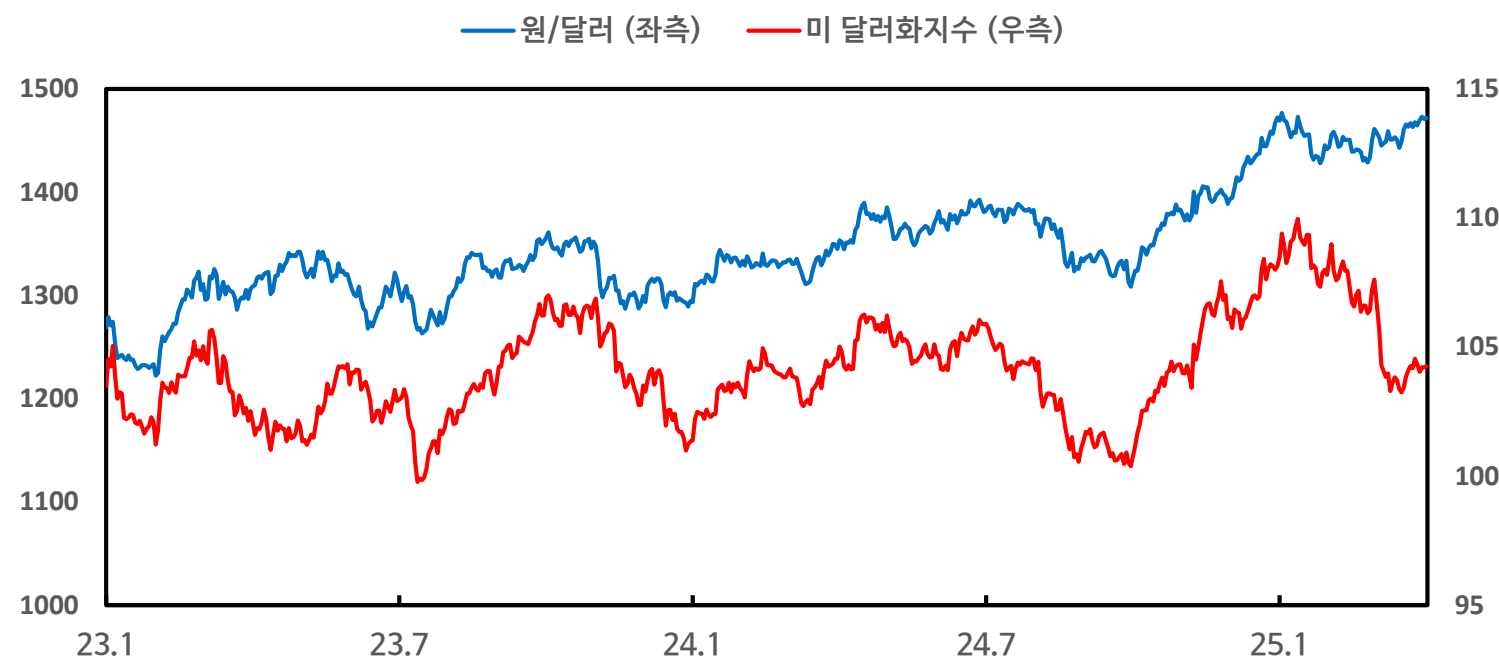
## II.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

### (4) 고환율 지속에 따른 리스크 관리

####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 (현황)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해외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및 국내정치 불확실성 등이 복합 작용



##### □ 리스크 요인

- 환율민감업종·외화대출 차주 채무상환능력 저하
- 금융회사 위험가중자산 증가, 외화환산손실 확대 ⇒ 자본비율 하락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대응경과

- 주기적으로 환율급등, 주가급락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실시  
⇒ ① 모든 금융회사(일부 소규모 금융회사 제외)가 규제자본비율 상회  
②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1·3개월) 상황도 안정적 수준

##### □ 향후계획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① 취약사 유동성 상황 및 유사사 유동성 확충 계획 밀착 점검
  - ② 건전성·유동성 관리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예) 위기사 한은 유동성 지원 체계 점검 등
-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 ① 외환·외화자금시장 및 외화유동성 상황 일별·주별·월별 모니터링
  - ② 분기별 외화유동성 ST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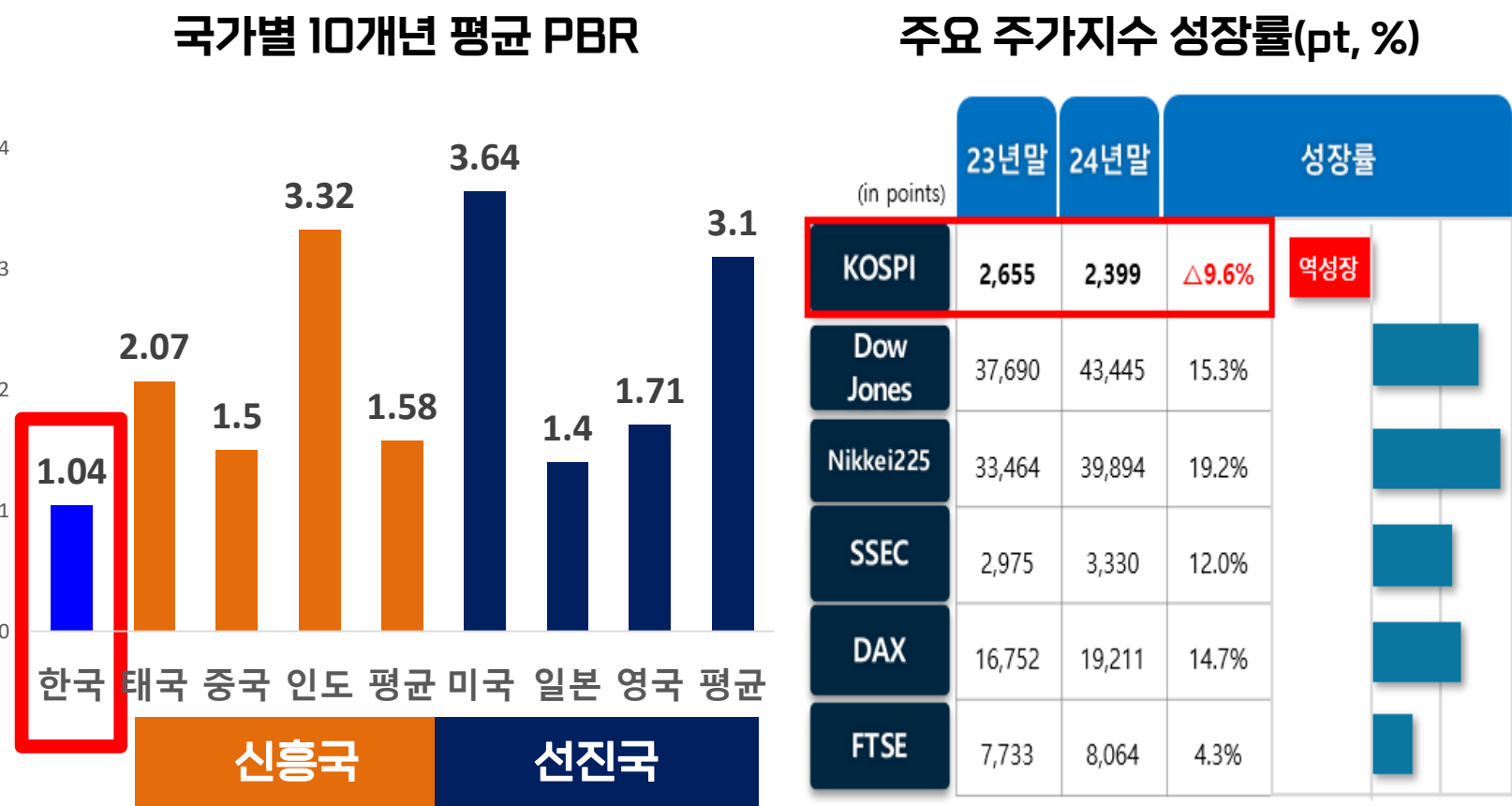
Ⅲ. 지속 추진 주요 업무 과제

(1) 자본시장 선진화

현 황

□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최근 우리 증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전망**,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정치 불안** 등으로 **부진** 지속
- **지배구조 선진화**, **인프라·세제 정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을 **개선**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구축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대응경과) 14개 주요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시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
- 간담회·세미나·설명회 등 **50여차례**의 공론화 자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지속

	현황	향후 계획
주주가치 제고	IPO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배당절차개선, 전환사채의 유통공시 강화 및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기업분할등 자본거래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기업 진입·퇴출 제도개선 지속 추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유도
증시 활성화	해외IR,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등	주주환원을 위한 세제개편 지원,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방안
자본시장 인프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도정비, ATS 출범 등 복수시장 체제 도입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운영 등 제도 안착, ATS 출범 이후 후속조치
접근성	영문 공시 서비스 확대, 국채 통합계좌 제도 정비 등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요건 완화 등 투자규제 개선

### Ⅲ. 지속 추진 주요 업무 과제

#### (2) 보험개혁 종합방안 추진

##### 현 황

-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세계7위 규모로, 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
- **단기성과주의**(단기납종신 환급률 강조 영업,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등)에 의한 **영업관행 반복**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 지속**
  - (상품) **혁신 상품** 출시 정체, **카피캣 상품** 등 **과당경쟁** 치중
  - (모집) **불완전 판매**, **고수수료** 위주 **영업관행** 등
  - (회계) 장기 추정 기반 **IFRS17** 도입으로 **단기 사업비** 경쟁
- 또한, **인구·기술·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대응경과

- 신뢰회복 및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24.5월~’25.3월중 개혁회의 7회, 실무반회의 10회, 자문단회의 5회 등을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추진

###### 주요 개선 내용

- |                                                                                                                                       |
|---------------------------------------------------------------------------------------------------------------------------------------|
| ① <b>소비자중심</b> 제도 개혁: 소비자가 제대로 <b>이해</b> 하고 <b>가입</b> 할 수 있도록 <b>실효성</b> 있게 <b>설명</b> , <b>보험금</b> 청구 <b>신속 지급</b> 및 <b>청구 편의성</b> 제고 |
| ② <b>보험상품</b> 개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b>노후지원 5종 세트</b> 추진                                                                                    |
| ③ <b>판매채널</b> 개선: <b>판매수수료</b> 전격 개편, <b>GA</b> 에 대한 불완전판매 <b>책임강화</b>                                                                |
| ④ <b>경영문화</b> 쇄신: <b>보상체계 모범관행</b> 도입 등 <b>단기성과주의</b> 개선                                                                              |
| ⑤ <b>변화 대응·혁신</b> : <b>요양산업</b> 관련 부수 업무 확대, <b>자연재해</b> 보험 확충, <b>해외진출</b> 규제 개선                                                     |

######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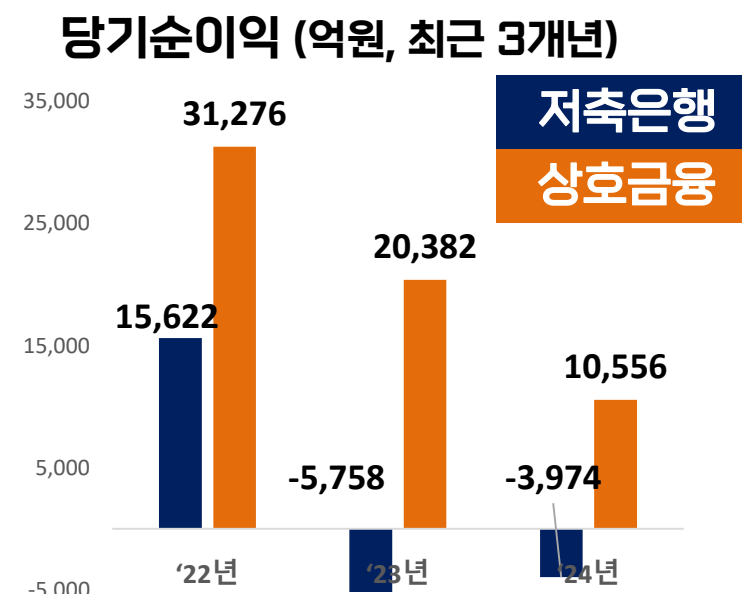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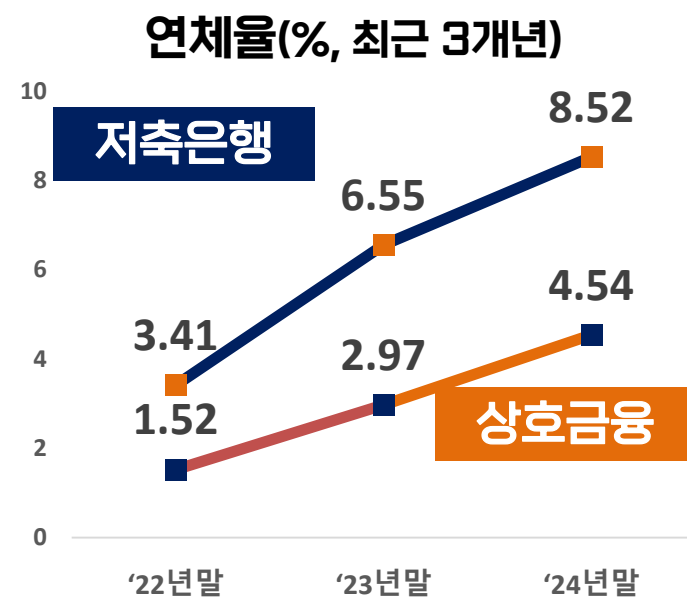
- 7차례 개혁회의에서 발표된 **74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및 입법지원

### Ⅲ. 지속 추진 주요 업무 과제

#### (3)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 제고

##### 현 황

- 저축은행·상호금융은 대표적 **지역·서민금융기관**
- 하지만,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PF, 부동산·건설업** 대출 중심 **자산 성장 및 수익 추구**
  -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건전성 악화** 반복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작용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대응경과

- '25.1월 **업권별 TF** 구성을 통해 지역 및 공동유대 중심 영업으로의 재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저축은행) 1차 TF(1~3월)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등 **개선 방안을 확정**(3.20.)
  -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등 **고위험대출 쏠림 완화, 불합리한 여신심사 관행 개선, 대형조합 내부통제 강화** 등 **5개분야 및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실무논의** 진행 중

###### □ 향후계획

- (저축은행) **4월부터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를 위한 **2차 TF**를 **추진**하여, **규제체계 재정립안** 마련
- (상호금융) **6월까지(잠정) TF 운영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제도개선 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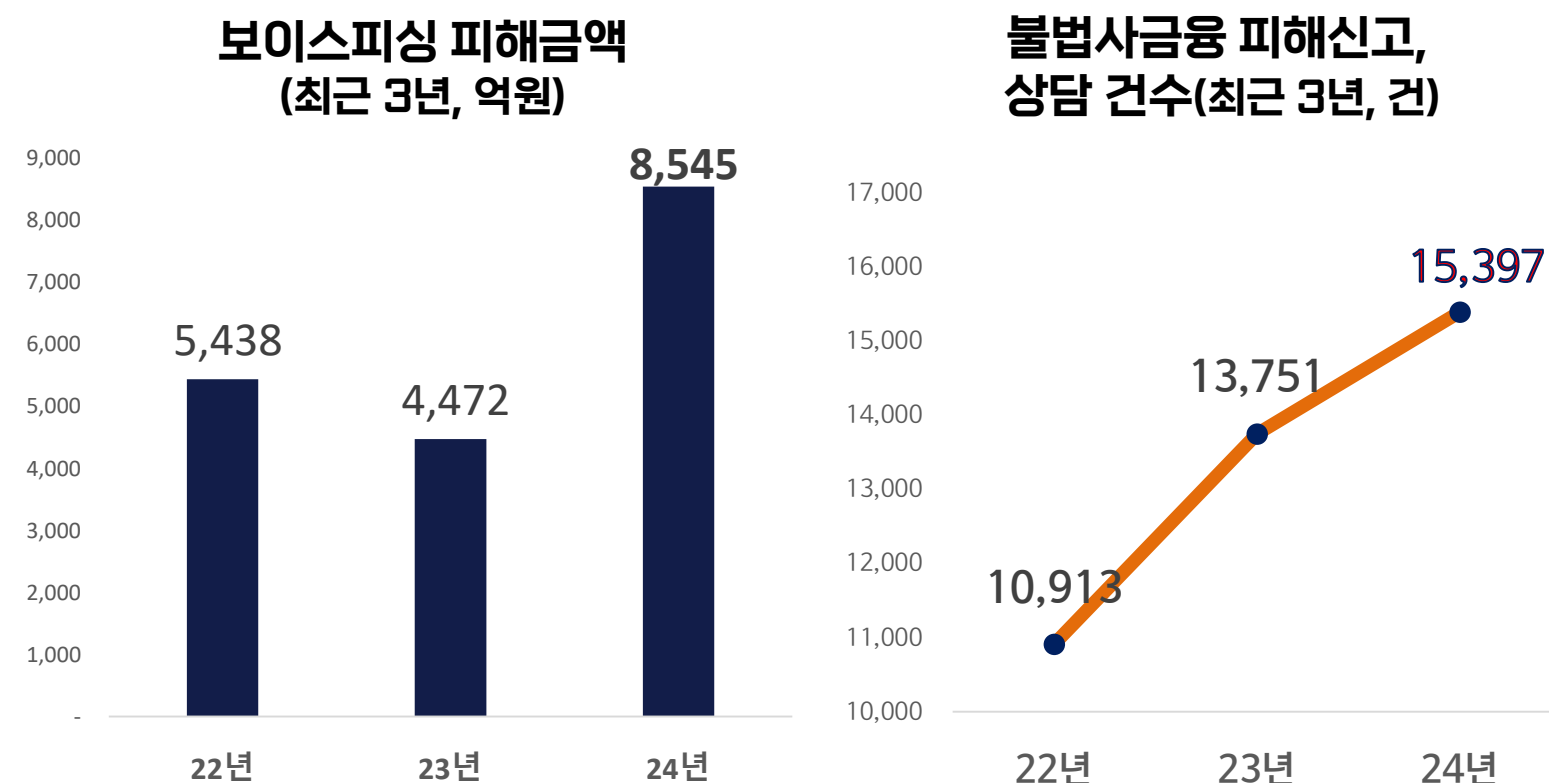
### Ⅲ. 지속 추진 주요 업무 과제

#### (4)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 현 황

##### □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지속

- 불법사금융의 악질화(지인·성착취) 및 고령층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사례 증가 등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추세
-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협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 대응경과

- 범정부TF('22.8월~)를 통해 제도개선, 수사 및 단속 지원 등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며 다방면으로 총력 대응
- 불법금융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24년 5,573건), 온라인 게시물 차단의뢰('24년 19,870건) 등 사전차단 강화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 지자체, 금융기관 창구, 대중교통수단, SNS 등 적극 활용

#####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 시행



##### □ 향후계획

-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속 추진

Ⅲ. 지속 추진 주요 업무 과제

(5)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

현 황

-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3자 의존 심화
  - (집중리스크) 특정수탁자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경우, 수탁자 측 장애 발생시 서비스 제공에 차질
  - (종속리스크) 과점적 지위의 수탁자 측 장애 발생시 금융기관의 수탁자 전환이 어려워져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 금융기관 자체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BIS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은행권	여타 업권
'24년부터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SMOR)」을 통해 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중	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 미흡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대응경과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초안마련 및 발표('25.3월)
    - 각 업권 협회와 가이드라인 초안 및 우선 적용대상 금융기관 기준 협의중
  - [참고]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 (기본원칙) 금융기관 內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 및 유지
    - (관리체계 구축)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
    - (종합리스크 관리)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및 관리 강화, 업무연속성 계획(BCP) 마련, 리스크 관리 활동 내역 문서화 등
- 향후계획
  - ('25.3분기) 가이드라인 기반의 협회별 모범규준 마련
    - \*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관리 책무를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배분 하도록 유도하여 이행력 확보
  - (우선 적용 업권)
    - (보험) GA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카드사) 이커머스 시장의 온라인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

#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